



문 상 흡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고분자학회의 회원 여러분에게 한국화학공학회를 대표하여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은 그동안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에틸렌 생산 능력은 세계 4위(2002년 기준), 합성수지의 생산규모는 세계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거의 모든 화학제품의 기초 원료가 되는 고분자의 중요성도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 발전과 더불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분자는 전통적인 화학 산업 외에도 정보 산업과 신 에너지 기술의 핵심 재료로 쓰이고, 또한 나노 소재 및 생명 산업의 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분자는 이를 구성하는 원료의 조성 외에도 합성 조건, 타 물질과의 혼합 비율, 표면 처리 및 가공 조건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따라서 고분자 학문과 기술의 발전은 화학, 물리, 재료, 화학공학, 기계공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고분자 학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독립된 학회를 창립함으로써 과학자와 공학자가 함께 모여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신 선배 학자님들의 선견지명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한국고분자학회가 그동안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역대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에 대하여도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날의 학문은 기존 학문 분야 간의 긴밀한 상호 교류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화학공학회는 이미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고분자학회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분자 산업 내지는 화학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학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